**집안이 나쁘자고 탓하지 말라.**

**나는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쫒겨났다.**

**가난하다 말하지 말라.**

**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,**

**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.**

**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.**

**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,**

**병사로만 10만, 백성은 어린애, 노인까지 합쳐 2백만 명도 되지 않았다.**

**배운 게 없다고,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.**

**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**

**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**

**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.**

**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.**

**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**

**빰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.**

**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.**

**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모두 깡그리 쓸어버렸다.**

**나를 극복하는 순간,**

**나는 징기즈칸이 되었다.**

2011.9.9(금) 아침 05:17

어제 구입한 ‘지식인의 서재’ 책속에서… 한복 디자이너 이효재의 인용시

(지식인의서재 15명 – 조국\_법학자, 최재천\_자연과학자, 이안수\_솟대예술작가, 김용택\_시인, 정병규\_북디자이너, 이효재\_한복디자이너, 배병우\_사진작가, 김진애\_블로거건축가, 이주헌\_미술평론가, 박원순\_소셜디자이너, 승효상\_건축가, 김성룡\_출판문화인, 장진\_영화감독, 조윤범\_바이올리니스트, 진옥섭\_전통예술 연출가)